

부정적 인생사건이 비행시작 및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 미시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혜원*

박정선**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을 이용하여 ‘부정적 인생사건’이 비행시작 및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매개요인의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부정적 인생사건들 중에서 주요 원인을 도출하고, 어떠한 요인이 어떠한 매개과정을 통해 비행시작 및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부모유대, 자기통제, 자기효능, 자기존중감, 비행친구 등의 변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과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비행시작’에는 부정적 인생사건이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았고, ‘재비행’ 경우에는 ‘불이익적 사건’ ‘징계’ ‘부모의 자발적사건’이 의미 있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작용하였다. 둘째, ‘비행시작’은 부정적 인생사건이 비행에 이르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고, 자기통제·비행친구·부모애착을 통해 완전매개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재비행은 부정적 인생사건에 의한 직접적인 경로뿐만 아니라 자기통제·비행친구·자기효능감, 부모감독을 통해 부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 본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사회학박사

I. 들어가며

청소년기는 인간의 전 생애에서 변화가 많은 시기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보통 청소년들을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인 등 다양한 표현으로 지칭하며, 청소년의 혼란을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적 인생사건이나 경험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이며 혼란을 특징으로 하는 청소년기에 부모의 이혼, 학대경험, 불이익적 경험과 같은 부정적 인생사건을 경험하면, 그에 따른 악영향은 그들이 성인일 때 보다 파괴적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범죄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비행연구들은 청소년일탈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사회적 환경요소들은 지금까지도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아노미이론, 차별접촉이론, 사회통제이론들은 “어떤 소년이 ‘왜’ 비행을 저지르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가정, 학교, 친구 등에서 비행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비행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것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동일하다는 전제를 암묵적으로 깔고 있으며(이동원, 2006), 따라서 전환점으로써의 인생사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청소년비행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연구문제는 일회성 비행이 아닌 다발성 비행에 대한 연구이며, 여러 번의 비행 즉 재비행을 촉진시키거나 진행시키는 전환점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는 소년들의 재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요인을 탐색한 이동원(2006)의 연구와 지속적 소년비행의 원인을 연구한 이순래(2005)의 연구정도를 들 수 있으며, 부정적 인생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는 소년범의 범죄화과정 및 보호방안을 연구한 박정선(2004)의 연구정도로 양적으로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서구에서는 1990년대부터 새로운 변수를 밝히거나 새로운 일반 이론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범죄행위의 동태적 측면을 행위자의 성장단계별 상태

나 발전과정 혹은 개인성향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분석틀인 발전-생애과정범죄학(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 이하 DLC)이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부정적 인생사건에 대한 관심은 발전-생애과정범죄학(DLC)에 의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발전-생애과정범죄학(DLC)에서 인생사건은 인간의 삶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음을 주목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어떠한 삶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삶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박정선, 2004).

샘슨과 라웁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4가지 사건(결혼, 군 입대, 구직, 자신의 환경과 이웃의 변화)을 지적하며, 인생사건이 사회유대를 강화시켜 비행을 중단한다고 한다(Sampson and Laub, 1993). 인생사건은 긍정적 인생사건과 부정적 인생사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인생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생사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적었다. 물론 몇몇 연구에서는 부정적 인생사건(이혼, 학대)이 사회유대를 변화시켜 비행을 지속시킨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부정적 인생사건이 사회유대요소들을 매개로 청소년비행을 지속시킨다는 것이다(Farrington, 2005). 애그뉴(Agnew, 1992)는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부정적 인생사건을 논의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의 부정적 자극을 피하거나 개선하고자 할 때 청소년비행이 유발된다고 한다(Piquero & Sealock, 2004). 엘더(Elder)는 인생사건을 어느 시기에 경험하느냐가 사건의 의미를 변화시키고(Elder, 1995), 인생사건은 미래의 인생역정을 변화시켜 범죄를 지속시킬 수도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행과 관련하여 자기효능감을 인생과정의 변화의 전환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Elder, 1998).

위와 같은 부정적 인생사건과 비행의 지속·중단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종단적인 자료(longitudinal data)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¹⁾가 구축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행행동의 궤적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서구의 많은 연구들은 장기간의 종단자료를 가지고, 청소년비행의 중단과 지속을 연구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단기(4년)종단자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비행의 지속연구라기보다는 재비행연구라고 할 수 있다.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를 이용하여 ‘부정적 인생사건’이 비행시작 및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매개요인의 역할을 검증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인생사건의 영향력을 검증하거나, 부정적 인생사건이 어떠한 변수에 매개되어 비행을 행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려는 작업은 소홀했다. 그러므로 여러 부정적 인생사건들 중에서 주요 원인을 도출하고, 어떠한 요인이 어떠한 매개과정을 통해 비행시작 및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부모유대, 자기통제, 자기효능, 자기존중감, 비행친구 등의 변수를 통해 살펴보고자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인생사건(life event)과 청소년 비행

범죄학분야에서 발전이론들은 만성적이면서 지속적인 범죄자에게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아동기에 발생한 범죄 경력이 성인기까지 지속되어온 만성적 범죄자라는 개념이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청소년비행전문가들은 여전히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발전범죄학에 따르면, 아이들은 걸음마기 때부터 그들의 성인기 인생을 결정지을 관계를 맺고 행동들을 시작한다. 그들은 처음으로 사회적인 규칙에 순응하고,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방법을 배워야한다. 그들은 훗날의 직업(경력)에 대해 생각하고, 부모를 떠나 영구적인 관계를 맺을 이들을 찾고, 결국 그들과 결혼하여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Siegel & Welsh, 2007).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가 일찍 일어날 수 있으며(예를 들면 소녀가 무분별한 성행위를 하여 학생의 신분으로 아이를 가지는 경우), 때로는 이러한 변화가 너무 늦게 일어날 수도 있다(예를 들면 학생이 성적이 너무 낮거나 유급을 하여 정시에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범죄피해경험 때문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졸업할 수 없는 경우). 또한 하나의 제도에서 이탈하면 다른 제도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다(예를 들면,

보호관찰경험이나 소년원입소경험은 교육이나 직업적 경력의 발달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생의 주요한 전환기에 각 단계에서 경험해야 할 사건이 아닌 사건을 경험할 경우, 그들이 겪게 되는 혼란은 파괴적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범죄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실직이나 학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은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적인 문제와 더불어 비행으로 외현화 되기도 한다(McLeod & Shanahan, 1993). 사회경제적 문제들 또는 역기능적 가족 때문에 이미 위협에 처한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더욱 민감할 것이다. 이러한 혼란들의 축적효과는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의 범죄를 유지시킬 것이다(Siegel & Welsh, 2007).

인생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의 전환은 굴곡이 있기 때문에, 비행행동의 경향성은 안정적이지도 않고, 일관적이지도 않다. 긍정적인 인생의 경험은 잠시 동안 비행자들이 비행을 멈추게 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반면 부정적인 인생의 경험은 그러한 비행들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성숙해 가면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변해간다. 삶의 주기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인생사건(life event)’이라고 한다. 즉 ‘인생사건’은 궤적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개념들을 정리해 보면, 궤적(trajecory)이란 처음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지게 되면서, 결혼을 하면서, 부모가 되면서 또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등 각종영역에서 사람들이 겪어 나아가는 하나의 경로(pathway)이자 일련의 발달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의 궤적보다는 다수의 궤적들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사람들의 삶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연쇄적이고 유형화된 행위로 구성된 다수의 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전이(transition)란 궤적들 틈새에 끼여 보다 단기간에 발생하는 ‘인생사건(life event)’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안정된 상태의 궤적들과 사건으로서의 전이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소위 전환점 또는 인생향로 유형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박정선, 2004).

어린 청소년범죄자들이 성숙함에 따라 범죄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인생사건(life event)”의 효과를 검증한 학자가 샘슨과 라오펜이다. 샘슨과 라오펜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4가지 사건(결혼, 군 입대, 구직, 자신의 환경과 이웃의 변화)을 지적하였다(Siegel & Welsh, 2007). 비슷하게 피케로와 그의 동료들(2002)은 결혼과 취업이 “갓 성인이 되어(emerging

adulthood:18-25세) 가석방된 사람들의 공식적 재범비율을 낮추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우겐(Uggen, 2000)은 취업이 재범률을 낮추었지만, 피케로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와는 달리 더 젊은 층이 아닌 27세 정도의 범법자들 사이에서 취업이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민수홍 외 역, 2005). 인생사건(life event)과 관련하여 패링턴도 지속적인 반사회적 범죄자를 추적한 중요한 중단연구들 중 하나인 캠브리지 연구를 통해 범죄행위의 장기간 연속성을 예측하는 인자들을 분리해 내려는 진지한 시도들을 행하였다. 그는 인생경험이 행동선택의 방향과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제안하며 비행을 유발시키는 위험인자와 범죄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인생사건(life event)에 대해 요약하였다(Farrington, 2005a).

발전-생애과정범죄학(DLC)의 3가지 이슈 중에서 인생사건(life event)은 다른 분야에 비해 적게 연구되어 왔으며, 인생사건(life events)도 결혼이나 직업 등과 같은 요소의 검증에 국한되어 종교의 전환 · 보호관찰 · 교도소 · 범죄피해경험 등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Farrington, 2003). 결혼이나 직업과 같이 범죄를 중단시키는 ‘인생사건’은 잘 알려져 있으나 범죄발생의 시작이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Patenoster & Iovanni, 1999; Farrington, 2005;7). 인생사건(life event)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다양한 인식이 존재한다. 패링턴(Farrington), 샘슨(Sampson), 빅스트림(Wikström) 등은 인생사건(life event)에 대해 명백히 논의하였고, 호킨스(Hawkins), 르블랑(LeBlanc), 손베리(Thornberry) 등은 그들의 모델을 구성하는 가운데 인생사건을 중요한 요소로서 논의한 반면, 모피트는 인생사건(life event)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Farrington, 2005b;255).

또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걸쳐 성인기에 이르는 범죄경력 변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청소년기 비행 및 범죄의 변화과정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는 부족하였다. 시몬스와 그의 동료들은(Simons et al., 1998) 소년시절의 파괴적 행위가 비행과 범죄로 발전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몇몇 반사회적 아이들로 하여금 청소년시절 동안 보다 인습적인 생활 형태를 취하게 하는 요인들을 발견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인생사건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동향을 살펴볼 때 삶의 역동적시기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기에 대해 보다 많은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박정선(2004)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인생사건(life event)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관심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특수한 사건이며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사건(life event) 중 부정적인 삶의 전이를 주도하는 ‘부정적 인생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부정적 인생사건’은 일부 아이들이 경험하는 특수한 사건들 중에서 그들의 정서발달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내용들을 담아보았다.

가. 부모와 관련된 사건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사회화가 되는 사회제도이며,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다.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가족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다. 부모와 관련된 사건은 ‘비자발적 사건’과 ‘자발적 사건’ 그리고 ‘학대’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부모의 비자발적 사건’이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부모 중 누군가가 사망했다든가, 경제력을 책임지시던 분이 실직을 했다든가 하는 사건 등은 부모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자발적 사건으로 분류된다. ‘부모님과 관계된 자발적 사건’들은 비자발적 사건들과 달리 부모의 의지에 의해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부모와 별거를 하고 있다든가 가출을 하였다든가 하는 사건들은 부모의 의지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 자발적 사건들은 대개 그 자체로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전조 행위 또는 발생 후의 기억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학대’의 개념정의를 다양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나. 불이익적 사건

‘불이익적 사건’이란 상호작용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이익을 경험하는 현상이다. 교사의 경우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서는 비판적이 되거나 이들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관계로 인한 과도한 체벌이나 지나친 모욕을 할 경우 해당학생의 인생 궤적에 큰 영향을 남길 상처이며 사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선생님과 관계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친구의 부모나 동네의 어른들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다. 징계경험

범죄행위 그 자체보다는 범죄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발각되었다는 사건 그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경험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 발각되어 처벌당했다는 경험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존감에 상처를 받고 스스로 범죄자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며 재비행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징계경험이란 범죄행위가 발각되어 처벌받았던 경험인 학교 처벌과 경찰체포경험으로 구성하였다.

2. 부정적 인생사건의 효과는 매개되는가?

범죄경력패러다임(criminal career paradigm)은 범죄의 시작, 지속 및 중단과 같은 범죄 발전형태의 특성에 관한 지식을 엄청나게 진척시켰으나 이들 형태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과 인생사건들 또는 위험요인, 나아가 인생사건을 설명하는 이론들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Piquero et al., 2003). 이에 패링턴(Farrington, 2003)은 Sutherland Award 수락 연설문에서 기존의 범죄경력연구에 위험요소와 인생사건 등을 추가하여, 비행에 있어서 개인 안에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들을 발전-생애과정범죄학(DLC)이라 구체적으로 명명하였다. 발전-생애과정범죄학(DLC)은 구체적으로 1990년대에 두드러졌던 약간 다른 강조점을 가진 위험방지 패러다임(risk factor prevention paradigm), 발전범죄학(development criminology), 생애과정범죄학(life-course criminology)들을 통합시킨 이론이다.

발전-생애과정범죄학(DLC)은 인생사건(life event)이 긴장을 일으키고, 비공식적 사회유대를 약화시키거나 혹은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며, 반사회적 행동의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으로도 이해하고 있다. 인생사건이 사회유대나 긴장 등을 통해 반사회적 행동의 궤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발전-생애과정범죄학(DLC)에서는 인생사건과 매개요인과의 관계를 통해 인생의 궤적변화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

범죄학에서 최근 다양한 이론적 관심과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지만 비행 및 범죄행위에서 변화의 문제와 변화를 자극하는 요소인 인생사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샘슨과 라웁에 의해 변화되었다. 샘슨과 라웁은 어린 청소년범죄자들이 성숙함에 따라 범죄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인생사건(life event)”의 효과를 검증한다. 그들은 직업, 가족과 강하게 연계된 형태의 사회적 유대가 이전의 범죄청소년이 범죄로부터 벗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통제의 연령단계이론(Age-graded theory)을 제안하면서, 안정적인 결혼과 꾸준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중지하기 쉽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삶의 과정에서 결혼과 직업이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결혼과 직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결혼과 직업과 같은 인생사건이 궤적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하나의 전환점이며 범죄를 중지시킬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Sampson and Laub, 1993).

그러나 샘슨과 라웁은 직업과 결혼 등과 같이 ‘장래성 있는 인생사건들’에 관심이 있었고, 주로 20세 이후의 사건을 주목하였다. 그들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4가지 사건을 결혼, 군 입대, 구직, 자신의 환경과 이웃의 변화로 보고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켜 “범죄라는 인생궤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Siegel & Welsh, 2007). 인생사건과 관련하여 패러던도 지속적인 반사회적 범죄자를 추적한 중요한 종단연구들 중 하나인 캠브리지 연구 속에서 범죄행위의 장기간 연속성을 예측하는 인자들을 분리해 내려는 진지한 시도들을 했으며, 인생사건이 행동선택의 방향과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제안한다. 그는 상대적으로 좋은 직업, 결혼, 이동 등과 같은 인생사건은 범죄활동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역으로 잘못된 부모의 감독과 훈육, 부모의 갈등 및 분리, 사회경제적 상태 등을 위험요소로 보았다(Farrington, 2005b). 엘더(Elder, 1998)는 과거 삶의 부정적인 경험을 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전환점을 가지며, 그 기

회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개인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원의 질과 양에 따라,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종류에 따라, 또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됨에 따라, 개인적 차원의 인생궤도(trajjectory)를 만들어어나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초기의 삶의 변화(life transition)가 그 이후의 변화(transitions)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익과 불이익의 누적을 가져오는 행동의 결과가 되지만, 변화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인생사건(life events)들 가운데 결혼이나 직업 등과 같이 장래성이 있는 요소만을 주로 검증해 왔고, 비행시작이나 비행지속과 관련된 ‘인생사건’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따라서 ‘인생사건’과 관련하여 비행중단과 관련된 사건뿐만 아니라 비행시작이나 비행지속과 관련된 사건의 발굴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인생사건도 20세 이후 사건으로 정의함으로써 역동적인 시기인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으며, ‘부정적 인생사건’ 즉 장래성이 없는 사건에 대한 관심도 미진했다(Farrington, 2005a:7).

학대, 부모의 이혼경험 등과 같은 부정적 인생사건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사회화과정을 방해하고, 사회적 연대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반사회적 행위들을 양산시킨다는 연구들이 있지만(Siegel & Welsh, 2007; Catalano et al, 2005), 전환점으로써 부정적 인생사건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은 역시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경력에 관한 연구들이 일차적인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는 부분인 비행 시작(onset)과 재비행에 부정적 인생사건이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매개요인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연구에서는 부정적 인생사건의 영향력을 검증하거나, 부정적 인생사건이 어떠한 변수를 매개로 비행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적 작업이 소홀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부정적 인생 사건들 중에서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어떠한 요인이 어떠한 매개과정을 통해 비행 및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내비행연구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모유대, 비행친구, 자기존중, 자기효능, 자기통제 변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²⁾

2) 발전-생애과정범죄학에서는 Bernard 와 Snipes(1996)의 입장에서 폭넓게 통합의 작용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각 이론들 간의 가정에 관계없이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비행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시적 변수들을 재구성하여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유대이론은 미국과 같은 서양사회보다도 한국 사회와 같이 부모, 친구 등의 타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사회에서 적용가능성이 높다(이성식, 1995). 그중에서도 가정요인은 청소년비행설명에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주요 요인이며(이성식, 2005), 일부 학자들은 가정의 구조적 요인보다는 가정의 기능의 문제가 청소년의 비행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준호·김선애, 1996). 이처럼 가정의 기능적인 측면인 가족유대와 비행은 비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연구결과에 의하면 서구에 비해 그 적용가능성과 설명력이 크다. 최근에는 부모유대가 비행의 시작뿐만 아니라 비행의 결과로서의 중요성도 제기되고 있다(Agnew, 1985).

청소년비행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비행과 가장 큰 관계를 보이는 요인 중 또 하나가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다. 비행친구요인은 비행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비행이론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비행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도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다른 모든 변인보다 설명력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준호 외,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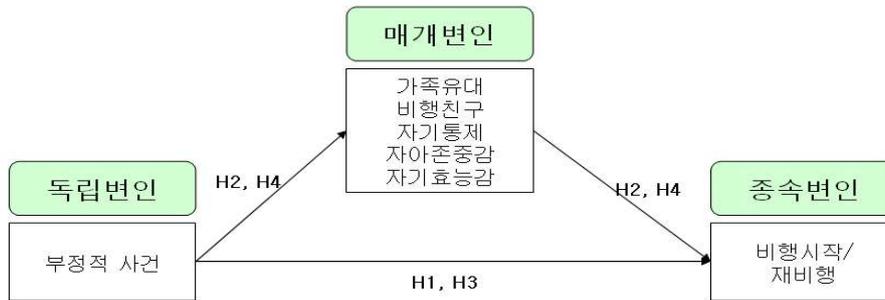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과 비행은 범죄학에서 제법 오랜 전통을 갖는 관계이다. 레클리스(Reckless, 1967)는 자아존중감을 내적인 통제요인으로서 비행을 통제하는 요인으로 보았고, 그 외에도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 1989)와 같은 낙인이론가에서도 발견되며, 최근에는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 1990)에게도 유사한 논의가 발견된다(박철현, 2005 재인용).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청소년패널의 자료를 통해서 국내의 경험적 자료로도 지지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민수홍, 2005; 박철현, 2005).

Ⅲ. 연구가설과 방법

1. 연구가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 볼 때 청소년비행 및 재비행을 설명하는 이 연

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부정적 인생사건이 비행시작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H2: 부정적 인생사건이 비행시작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족유대, 비행친구, 자기통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들에 의해 간접적인 경로를 가질 것이다.

H3: 부정적 인생사건이 재비행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H4: 부정적 인생사건이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족유대, 비행친구, 자기통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들에 의해 간접적인 경로를 가질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2003년 조사시작 - 2008년까지 추적조사)과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2004년 조사시작 - 2008년까지 추적조사) 중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동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잠재적 직업선택·향후 진로설정 및 준비·일탈행위·여가참여 등의 생활실태에 대해 추적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연구대상 중 중학교 2학년 패널(이하 중2패널)을 사용하였다. 중2 패널은 2003년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으며,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에 의해 표본으로 뽑힌 3,687명의 청소년들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까지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할 예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의 1차(2003), 2차(2004), 3차(2005), 4차년도(2006) 자료를 사용하였다. 중 2패널은 1차년도 최종 확정표본수인 3,449명(100%)에서 2차년도 3,211명(93.1%), 3차년도 3,123명(90.6%), 4차년도 3,121명(90.5%)으로 높은 표본유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김기현·임희진, 2007).

3. 측 정

가.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부정적 인생사건’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먼저 3차년도 즉 2005년에 대해 “다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을 수도 있는 나의 생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원편에 제시된 사건 가운데 학생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1) 발생여부 2) 그 사건이 처음 일어난 때가 언제였는지를 기재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였다. 질문된 사건은 ‘아버지가 돌아가심’, ‘어머니가 돌아가심’, ‘부모님의 별거’, ‘아버지의 재혼’, ‘어머니의 재혼’, ‘아버지의 가출’, ‘어머니의 가출’, ‘아버지의 사업실패’, ‘어머니의 사업실패’, ‘아버지의 실직’, ‘어머니의 실직’, ‘기억에 남을 만한 심한 부모님의 부부싸움’, ‘아버지가 어머니를 심하게 때림’,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맞음’, ‘어머니로부터 심하게 맞음’, ‘학교선생님으로부터의 치욕적인 대우나 구타’, ‘친구부모나 이웃어른들로부터 심하게 야단을 맞음’, ‘나로 인해 부모님이 이웃들에게서 야단을 들은 적이 있음’, ‘학교에서 정확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경찰서에 잡혀가 본적이 있음’ 등으로 구성하였다. ‘부정적 인생사건’은 다시 부모와 관련된 사건과 불이익적 사건, 징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부모와 관련된 사건은 ‘비자발적 사건’과 ‘자발적 사건’ 그리고 ‘학대’로 나누어서, ‘비자발적 사건’은 부모사업실패·부모실직·부모사망으로 ‘자발적 사건’은 부모별거·부모이혼·부모 가출·부부싸움·아버지가 어머니 때림으로 ‘학대’는 부모가 자녀를 심

하게 폭행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불이익적사건은 선생님에게 치욕적 대우를 받은 경험과 이웃어른에게 심한 야단을 맞은 경험으로 측정하였다. 징계경험은 정확, 경찰서 체포로 측정하였다. ‘부정적 인생사건’은 2005년도 까지 청소년들이 경험한 사건들을 누적적으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나. 매개변인

부모와의 유대는 부모와의 애착,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으로 측정할 것이다. 부모의 애착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의 6개 문항으로 ‘전혀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5점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알고 계신다’ 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된다.

친구관계는 친한 친구와 보통친구로 구분될 수 있다. 친구관계와 비행의 관계를 살펴보면, 관계의 빈도가 많을 때, 관계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그리고 관계의 우선순위와 밀도가 높을 때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친구의 영향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가장 친한 친구의 영향이 보통친구의 영향보다 크게 나타난다(Weerman& Smeenk, 2005:502-5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우 친한 친구’중에서 비행의 행동경험이 있는 친구를 비행친구라 정의하고, ‘전체 친한 친구의 수’에서 ‘특정의 비행을 한 친구의 수’를 비율화해서 비행친구로 측정하였다. ‘술 마시기’, ‘담배피우기’, ‘무단 결석’,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친한 친구 중 근신, 정확 또는 퇴학 등의 처벌을 받은 친구가 몇 명인가’, ‘경찰서에 잡혀간 적이 있는 친구’의 문항을 비행친구로 구성하였다.

자기통제는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가지 않는 편이다’ 6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존중감은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6문항 측정하였다. 그리고 긍정적인 3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부정적인 3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은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라는 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위의 매개요인들이 척도로서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매개변수들을 신뢰도를 살펴보면 각 변수의 크롬바하 알파값이 부모애착4차년 0.891, 부모감독4차년 0.880, 자기통제 0.681, 자기존중감 0.755, 자기효능감0.850으로 나타나 척도로서 충분히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었다.

다.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소년의 재비행과 비행시작이다. 재비행과 비행시작을 측정하기위하여 1차년도 조사자료와 2차년도 조사자료, 3차년도 조사자료, 4차년도 조사자료를 조사대상자의 신분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하였다. 결합된 자료를 대상으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비행은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경험’, ‘성관계 경험’,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남을 헐

박하기', '다른 친구를 집단 따돌림(왕따)시키기',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 중에서 1건 이상 경험을 한 경우로 측정한 후, 4차년도를 '현재비행'으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를 '과거비행'으로 구성하였다.

'현재비행'과 '과거비행'은 다시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무비행', '비행시작' 그리고 '재비행'으로 구분하였다. 즉 과거(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에도 현재(4차년도)에도 비행을 하지 않으면 '무비행', 과거(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에는 한 번도 비행경험이 없다가 현재(4차년도)에 비행한 경우는 '비행시작', 과거(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에 한번이라도 비행을 하고 현재(4차년도)에 비행을 한 경우에는 '재비행'으로 정의하였다. 측정결과 전체 2119명 가운데 무비행은 720명, 4차년도에 비행을 시작한 청소년들은 185명, 재비행은 1214명이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인생사건이 비행시작과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유의미하게 얻어낸 변수들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1><가설2><가설3><가설4>를 중심으로 각각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구축하고, 두 모델에 대한 적합성을 비교하여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정 할 것이다. 이를 위해 Spss13.0과 Amos 5.0의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다.

IV. 연구결과

1. 주요변인들의 특성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정적 사건'을 청소년들이 얼마나 경험했는가를 살펴본 결과, 부모사업실패, 부모실직, 부모사망과 같은 '부모의 비자발적 사건'을 1회 경험한 청소년은 158명이고, 2회 경험한 청소년은 5명

이었다. 부모별거, 부모이혼, 부모 가출 등과 같은 ‘부모의 자발적 사건’의 경우에는 1회 경험한 청소년은 272명이고 2회 경험한 청소년은 24명, 3회 경험한 청소년은 3명이었다. 부모가 자녀를 심하게 폭행하는 것으로 측정된 ‘학대’는 1회 경험한 청소년은 97명 2회 경험한 청소년은 6명이었다. 선생님께 치욕적인 대우를 받은 경험이나 이웃어른에게 심한 야단을 맞은 경험으로 측정된 ‘불이익적 사건’을 1회 경험한 청소년은 188명, 2회 경험한 청소년은 2명이었다. ‘징계’는 1회 경험한 청소년은 120명, 2회 경험한 청소년은 2명이었다.

<표 1> 매개요인들의 기술적 통계 분석결과

구 분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부모애착1차년	1.00	5.00	3.3407	.77906
부모애착2차년	1.00	5.00	3.4163	.75897
부모애착3차년	1.00	5.00	3.4347	.72570
부모애착4차년	1.00	5.00	3.4582	.75127
부모감독1차년	1.00	5.00	3.2214	.86627
부모감독2차년	1.00	5.00	3.3709	.83840
부모감독3차년	1.00	5.00	3.3761	.83457
부모감독4차년	1.00	5.00	3.4211	.81727
자기통제1차년	1.00	5.00	2.6753	.67329
자기통제2차년	1.00	5.00	2.7063	.68396
자기통제3차년	1.00	5.00	2.6527	.66767
자기통제4차년	1.00	5.00	2.6424	.65418
자기존중감1차년	1.00	5.00	3.1611	.62289
자기존중감2차년	1.00	5.00	3.2670	.62773
자기존중감3차년	1.00	5.00	3.3185	.60432
자기존중감4차년	1.00	5.00	3.3368	.61226
자기효능감1차년	1.00	5.00	3.4638	.73557
자기효능감2차년	1.00	5.00	3.4727	.74247
자기효능감3차년	1.00	5.00	3.5209	.70123
자기효능감4차년	1.00	5.00	3.5687	.69501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매개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 분석의 결과를 보면 <표 1>에 제시되듯이 응답자들의 부모애착의 수준은

1-5위에서 평균이 1차년도 3.3407, 2차년도 3.4163, 3차년도 3.4347, 4차년도 3.4582로 매년 비슷한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거의 미미할 정도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애착이 상승하는 경향도 보인다. 부모감독의 수준은 1-5범위에서 평균이 1차년도 3.2214, 2차년도 3.3709, 3차년도 3.3761, 4차년도 3.4211로 매년 비슷한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거의 미미할 정도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감독이 상승하는 경향도 보인다.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1-5범위에서 평균이 1차년도 3.4638, 2차년도 3.4727, 3차년도 3.5209, 4차년도 3.5687로 매년 비슷한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미미한 수준이지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상승하는 경향도 보인다. 자기존중감의 수준은 1-5범위에서 평균이 1차년도 3.1611, 2차년도 3.2670, 3차년도 3.3185, 4차년도 3.3368로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이 보인다. 자기통제의 수준은 1-5범위에서 평균이 1차년도 2.6753, 2차년도 2.7063, 3차년도 2.6527, 4차년도 2.6424로 다른 요소들과는 달리 미미한 수준이지만 하강하는 경향이 보인다.

2. 연구모델의 분석결과

<표 2>, <표 3>는 무비행을 기준으로 각각 비행시작과 재비행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하였다. <표 2>, <표 3>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다른 변수들의 영향과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고려한 조사대상자의 성, 가구 월 평균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변수의 독립적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표 2>을 살펴보면, 부정적 인생사건 중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비행친구($B=.014$), 자기통제($B=-.500$), 부모애착($B=-.29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3> 재비행과 관련하여 부정적 인생사건을 측정한 변수 중에서 '불이익적 사건'은 다른 변수들과 통제변수를 포함했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부모의 자발적 사건'과 '징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불이익적 사건($B=1.003$)을 많이 경험할수록 재비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가출하거나 이혼 혹은 심한 부부싸움 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징계경험이 많을수록 재비행가능성이 높았다. 부정적 인생사건들

중에서 불이익적사건, 징계, 부모자발적사건이 주요원인으로 도출되었다.

매개변인으로 살펴보았던 변수 중에서는 ‘비행친구’ ‘자기통제’ ‘자기효능감’ ‘부모감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비행친구(B=.029)가 많을수록, 자기통제력(B=.623)이 약할수록, 자기효능감(B=.196)이 낮을수록, 부모감독(B=-.163)을 덜 받을수록 재비행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2> 비행시작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구 분	추정치(B)	표준오차(S.E)	Wald	Exp(B)
월평균소득 4차	-.001	.001	1.176	.999
성별 4차	-.210	.193	1.194	.810
비행친구 4차	.014	.002	50.268****	1.014
자기통제 4차	.500	.155	10.413 ***	1.649
자기존중감 4차	.240	.179	1.802	1.271
자기효능 4차	-.032	.153	.044	.969
부모감독 4차	.019	.147	.016	1.019
부모애착 4차	-.295	.164	3.234*	.744
부모비자발적사건	.176	.349	.255	1.193
부모자발적사건	-.083	.272	.092	.921
불이익적사건	-.179	.626	.082	.836
학대사건	.329	.634	.269	1.389
Constant	-2.255	.926	5.926	.105
-2 Log Likelihood	748.226			
Model x ² (df)	117.226****(12)			

* p<0.1 ** p<0.05 *** p<0.01 **** p<0.001

또한 상관계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자발적 사건은 비행친구만을 제외하고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징계는 부모감독, 자기통제, 비행친구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불이익적 사건은 부모애착, 부모감독, 자기통제, 비행친구와 또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학대는 부모애착, 자기통제, 비행친구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과

상관관계의 결과로 미루어 불이익적 사건, 징계, 부모자발적 사건이 자기 통제, 비행친구, 부모감독을 통해(간접경로) 재비행에 빠져든다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³⁾

<표 3> 재비행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구 분	추정치(B)	표준오차(S.E)	Wald	Exp(B)
월평균소득 4차	.000	.000	.801	1.000
성별 4차	.045	.129	.122	1.046
비행친구 4차	.029	.002	279.804****	1.029
자기통제 4차	.623	.110	32.173****	1.864
자기존중감 4차	-.058	.122	.222	.944
자기효능 4차	.196	.105	3.443 *	1.216
부모감독 4차	-.163	.099	2.723 *	.850
부모애착 4차	.112	.109	1.058	1.119
부모비자발적사건	.342	.232	2.182	1.408
부모자발적사건	.269	.146	3.408 *	1.309
불이익적사건	1.003	.326	9.440 **	2.727
학대사건	.608	.399	2.322	1.836
징 계	1.484	.835	3.408 *	4.409
Constant	-2.678	.625	18.366	.069
-2 Log Likelihood	1544.866			
Model x ² (df)	894.583****(13)			

* p<0.1 ** p<0.05 *** p<0.01 **** p<0.001

이런 이유로 부정적 인생사건의 직접효과와 매개변수들과의 간접효과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표 2><표 3>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유의미하게 얻어낸 변수(p<.10)들과 본 연구에

3) 부정적 인생사건의 직접효과와 매개변수들로 고려한 비행친구, 자기통제, 자기효능, 자기존중, 부모애착, 부모감독을 경유한 간접효과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경로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비행이 이항변수인 이유로 경로분석을 활용하지 못하였다.

서 설정한 <가설1>, <가설2>, <가설3>, <가설4>를 중심으로 각각 완전 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 두 모델에 대한 적합성을 비교하여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다. Baron&Kenny(1986)가 제안한 매개모형 분석에 따르면 완전매개모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형이 적합해야 하며, 또한 외생변수, 매개변수, 잠재변수 간의 경로가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 외생변수→최종 내생변수의 경로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경우, 이를 완전매개(full mediation)한다고 하였으며, 반대로 '0'으로 제약하지 않은 모형이 '0'으로 제약한 모형에 비해 유의하고 외생변수→최종 내생변수의 경로계수 또한 유의하다면 이를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한다고 하였다.

가. 비행시작에 대한 경로

비행시작과 관련하여, 부정적 인생사건의 직접효과와 매개변수들을 통한 간접효과를 판별하기 위해 구성된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모델구성이 적합한가를 살펴보자. 완전매개모형은 χ^2 값이 31.444(df=13)으로서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또한 부분매개모형도 χ^2 값이 30.919(df=12)으로서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그렇지만 χ^2 값은 사례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적합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χ^2 값 뿐만 아니라 다른 적합도 지수⁴⁾를 고려해야 한다.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와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Measures)로 구분된다. 절대적합지수는 제안모델이 표본공분산행렬을 어느 정도나 예측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χ^2 값이 작고, 확률값이 크면 모델이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절대적합지수인 χ^2 통계량은 표본크기가 매우 큰 경우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적합지수 중 GFI(Good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중심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CFI와 RMSEA는 표본의 크기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 모형의 복잡성이 다른(통계적으로는 자유도가 다른)모형을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GFI(적합지수)는 모형의 적합도 계수로서 보편적으로 권장되는 수용기준은 0.9이상이다. RMSEA(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는 표본크기가 상당히 큰 제안모델을 기각시키는 χ^2 통계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이다. 이 값이 0.05-0.08의 범위를 보일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0.10이하이면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0.05

완전매개모형에서는 GFI는 0.991, CFI는 0.952, RMSEA는 0.044이며, 부분매개모형에서는 GFI는 0.991, CFI는 0.951, RMSEA는 0.046로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지수

모형	χ^2	df	p	$Q(\chi^2/df)$	GFI	AGFI	NFI	CFI	RMR	RMSEA
비행시작 (완전매개)	31.444	13	0.000	2.726	0.991	0.980	0.940	0.952	0.052	0.044
비행시작 (부분매개)	30.919	12	0.000	2.077	0.991	0.978	0.940	0.951	0.058	0.046

1) 완전매개

먼저 부정적 인생사건→미시적요인, 미시적요인→비행시작간의 경로만을 설정하여 부정적 인생사건이 비행시작에 직접적 경로를 미치지 않은 모형을 분석하였다.

<표 5> 비행시작에 대한 완전매개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표준화	비표준화	S.E.	C.R.	P
부정적 인생사건	→	미시적 요인	-0.473	-351.015	62.037	-5.658	0.000***
미시적요인	→	비행시작	-0.644	-0.004	0.000	-15.235	0.000***

* p<0.05 ** p<0.01 *** p<0.001

분석결과, 부정적 인생사건→미시적요인, 미시적요인→비행시작의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하이면 매우 잘 적합시키고, 0.01이하이면 가장 좋은 적합도라고 한다. 증분적합지수는 제안모형을 기초모형과 비교한 지수이다. CFI(비교적합지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0.09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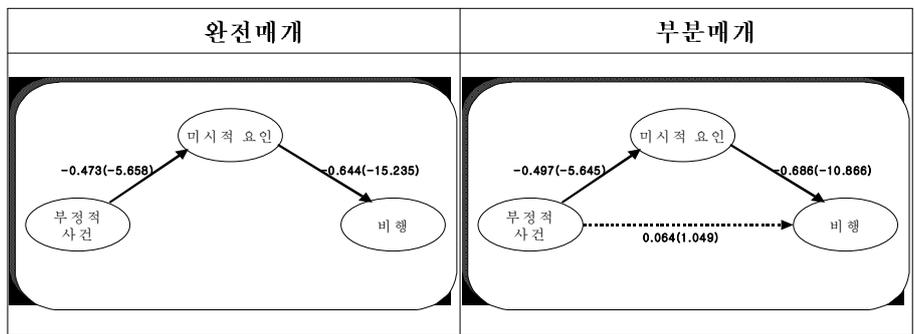
2) 부분매개

다음으로 부정적 인생사건→비행시작에 대한 직접 경로도 설정한 부분 매개 모형의 경로계수를 파악하였다.

<표 6> 비행시작에 대한 부분매개모형 분석결과

경로		표준화	비표준화	S.E.	C.R.	P
부정적 인생사건	→ 미시적 요인	-0.497	-359.815	63.738	-5.645	0.000***
미시적 요인	→ 비행시작	-0.686	-0.004	0.000	-10.866	0.000***
부정적 인생사건	→ 비행시작	0.064	0.298	0.284	1.049	0.294

* p<0.05 ** p<0.01 *** p<0.001



<그림 1> 비행시작에 대한 경로모형

분석결과 부정적 인생사건→미시적요인, 미시적요인→비행시작의 경로는 유의하였으나(p<0.05), 부정적 인생사건→비행시작에 대한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비행진입에 대한 경로는 부정적 인생사건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기보다는 부정적 인생사건→미시적요인→비행시작의 경로, 즉 미시적요인의 매개변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로도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재비행에 대한 경로

이번에는 재비행에 대하여 부정적 인생사건과 미시적요인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한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구성이 적합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완전매개모형은 χ^2 값이 24.066(df=13)으로서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또한 부분매개모형도 χ^2 값이 24.058(df=12)으로서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완전매개모형에서는 GFI는 0.992, CFI는 0.957, RMSEA는 0.031이며, 부분매개모형에서는 GFI는 0.992, CFI는 0.954, RMSEA는 0.033로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완전매개

먼저 부정적 인생사건 → 미시적요인, 미시적요인 → 재비행간의 경로만을 설정하여 부정적 인생사건이 비행에 직접적 경로를 미치지 않은 모형을 분석하였다.

<표 7> 재비행에 대한 완전매개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표준화	비표준화	S.E.	C.R.	P
부정적 인생사건	→ 미시적 요인	-0.444	-351.625	63.939	-5.499	0.000***
미시적 요인	→ 재비행	-0.776	-0.004	0.000	-13.765	0.000***

* $p < 0.05$ ** $p < 0.01$ *** $p < 0.001$

분석결과, 부정적 인생사건 → 미시적요인, 미시적요인 → 재비행의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2) 부분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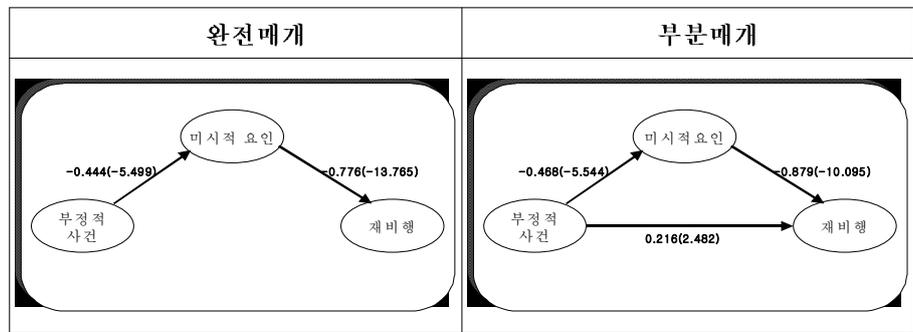
다음으로 부정적 인생사건 → 재비행에 대한 직접 경로도 설정한 부분매개 모형의 경로계수를 파악하였다.

<표 8> 재비행에 대한 부분매개모형 분석결과

경로			표준화	비표준화	S.E.	C.R.	P
부정적 인생사건	→	미시적 요인	-0.468	-364.301	65.707	-5.544	0.000***
미시적 요인	→	재비행	-0.879	-0.005	0.001	-10.095	0.000***
부정적 인생사건	→	재비행	0.216	0.968	0.390	2.482	0.013*

* p<0.05 ** p<0.01 *** p<0.001

분석결과 부정적 인생사건→미시적요인, 미시적요인→재비행, 그리고 부정적 인생사건→재비행 등 부정적 인생사건이 미시적요인을 경로한 간접적 매개효과 및 재비행에 대한 직접효과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재비행에 대한 경로는 부정적 인생사건→미시적요인→비행의 간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인생사건→재비행의 직접영향 모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로도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재비행에 대한 경로모형

<표 2>, <표 3>, <그림 1>, <그림 2>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정적 인생사건은 비행시작과 재비행을 동일한 경로로 설명하지 않는다. 비행시작의 경우에는 부정적 인생사건을 통한 직접적 효과는 없었고, 부정적 인생사건이 미시적요인인 비행친구, 자기통제, 부모애착을 통해 간접적 효과만이 나타났다. 재비행의 경우에는 부정적 인생사건을 통한 직접적 효과와 비행친

구, 자기통제, 자기효능감, 부모감독의 미시적 요인을 통한 간접적 효과도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 부정적 인생사건이 비행시작과 재비행에 다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 왜 부정적 인생사건이 비행시작과 재비행에 다른 효과를 지니고 있을까? 이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한 실마리를, 간접적경로인 미시적 요인 중에서 비행시작과 재비행간의 차이가 있는 부모애착, 부모감독의 변화추이를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패링턴(Farrington, 2000:8-9)은 범죄의 원인을 위험요인(risk factor)과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으로 나누고 있는데,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은 대표적인 보호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 인생사건이 비행시작집단에서는 직접적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부정적 인생사건을 완충해 주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비행시작집단과 재비행집단간에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이 과연 다르게 변화하고 분포하고 있는가를 반복적 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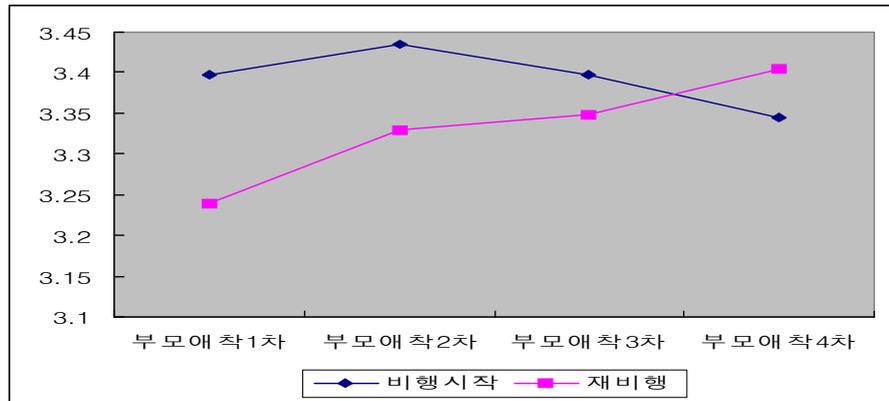
<표 9> 비행시작-재비행집단간 시기별 부모애착평균

구 분	비행시작_재비행	평 균	표준편차	N
부모애착1차	비행시작	3.3967	.67923	184
	재 비 행	3.2397	.77849	1205
	계	3.2605	.76771	1389
부모애착2차	비행시작	3.4339	.72240	184
	재 비 행	3.3302	.75786	1205
	계	3.3439	.75383	1389
부모애착3차	비행시작	3.3976	.75724	184
	재 비 행	3.3484	.71328	1205
	계	3.3636	.71909	1389
부모애착4차	비행시작	3.3451	.73242	184
	재 비 행	3.4041	.77507	1205
	계	3.3963	.76957	1389

* p<0.05 ** p<0.01 *** p<0.001

<표 10> 비행시작-재비행집단안의 부모애착변화추세

요 인	제Ⅲ유형 제공의 합	평균제공	F
부모애착	1.741	.580	2.125
부모애착×비행집단	4.139	1.380	5.051*
오 차	2003.585	1.445	



부모애착과 관련하여 <표 9>을 살펴본 결과, 1차년도-3차년도까지 비행시작집단은 재비행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을 지닌다. 하지만 4차년도에는 재비행집단에 비해 낮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즉, 현재 비행을 하기 전인 과거(1차년도-3차년도)에는 재비행집단에 비해 부모와의 애착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를 통해서 부모애착의 전체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2.125$, $p=.095$). 그러나 비행시작집단과 재비행집단간의 시기별 변화 차이를 파악한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집단의 변화추세가 다르게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5.051$, $p=.002$)

부모감독과 관련하여 <표 11>, <표 12>을 살펴본 결과, 부모애착과 동일하게 재비행에 비해 비행시작집단의 부모감독평균이 높았다. 부모감독의 전체변화는 유의미하게 정적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F=7.580$, $p=.000$). 비행시작집단과 재비행집단간의 변화차이를 살펴보면, 두 집단의

변화추세가 다르게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2.636, p=.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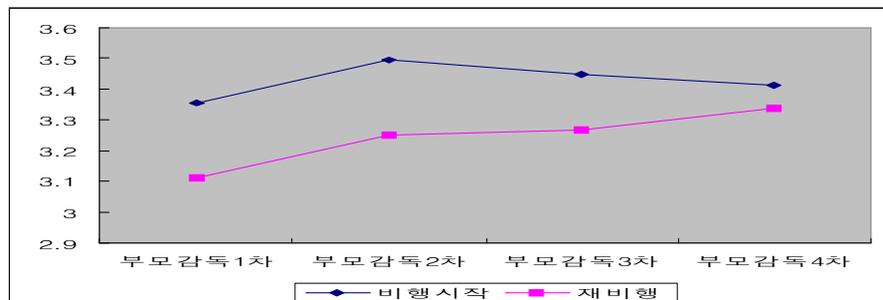
<표 11> 비행시작_재비행집단간 시기별 부모감독평균

구 분	비행시작_재비행	평 균	표준편차	N
부모감독1차	비행시작	3.3554	.83265	185
	재 비 행	3.1108	.82874	1214
	계	3.1431	.83309	1399
부모감독2차	비행시작	3.4932	.75651	185
	재 비 행	3.2488	.82257	1214
	계	3.2811	.81809	1399
부모감독3차	비행시작	3.4486	.83287	185
	재 비 행	3.2667	.82049	1214
	계	3.2907	.82415	1399
부모감독4차	비행시작	3.4122	.80677	185
	재 비 행	3.3369	.83665	1214
	계	3.3469	.83287	1399

<표 12>비행시작_재비행집단안의 부모감독변화추세

구 분	제III유형 제공의 합	평균제공	F
부모감독	8.832	2.944	7.580***
부모감독*비행_재비행	3.072	1.024	2.636*
오 차	1627.772	.388	

* p<0.05 ** p<0.01 *** p<0.001



<표 9><표 11>의 결과를 살펴보면 재비행집단과 비행시작집단의 과거(1차, 2차, 3차)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의 평균이 서로 다르며, 비행시작집단이 재비행집단에 비해 높았다.

위의 반복적 분산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과거(1차, 2차, 3차)에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이 비행시작집단이 높았고, 재비행집단과는 다른 변화추이를 보여준다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생사건이 완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완충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부정적 인생사건이 비행시작 및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매개요인의 역할을 검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인생사건의 영향력을 검증하거나 부정적 인생사건이 어떠한 변수에 매개되어 비행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그러므로 여러 부정적 인생사건들 중에서 비행과 재비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도출해 내고, 그 가운데 어떠한 요인이 어떠한 매개과정을 통해 비행시작 및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부모애착, 부모감독, 자기통제, 자아효능, 자아존중감, 비행친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과거에 비행이 없다가 4차년도(현재)에 처음으로 비행을 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부정적 인생사건이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비행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부정적 인생사건’이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재비행을 한 청소년 경우에는 ‘불이익적 사건’‘징계’‘부모의 자발적사건’이 의미 있게 작용하였다.

둘째, 부정적 인생사건들이 어떠한 매개과정을 통해 비행시작 및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표 2><표 3>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의 유의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으로 각각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두 모델에 대한 적합성을 비교하

여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정해 본 결과 ‘비행시작’은 부정적 인생사건이 비행에 이르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고, 자기통제·비행친구·부모애착을 통해 완전매개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모이혼, 별거, 부모가출, 불이익적 경험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인생사건들은 비행을 시작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나 부모애착, 자기통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행시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재비행은 부정적 인생사건에 의한 직접적인 경로뿐만 아니라 자기통제·비행친구·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가설2><가설3><가설4>를 부분적으로 지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정적 인생사건은 동일한 경로로 비행시작과 재비행을 설명할 수 없었으며, 부정적 인생사건들 중에 비행시작과 재비행에 미치는 주요사건들이 다르고, 매개효과에 있어서도 비행시작에서는 비행친구, 자기통제, 부모애착이 재비행에서는 비행친구, 자기통제, 자기효능감, 부모감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재비행과 관련하여 청소년비행에 대한 처벌에 대한 신중함과 부모의 가출과 이혼등과 같은 사건, 비행청소년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타인들의 일관성 있고 정당성 있는 태도의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인생사건이 비행시작과 재비행에 다른 효과를 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간접적경로인 미시적 요인 중에서 비행시작과 재비행간의 차이가 있는 부모애착, 부모감독의 변화추이를 반복적 분산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과거(1차, 2차, 3차)시점에서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이 재비행집단에 비해 비행시작집단이 높았고, 재비행집단과는 다른 변화추이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인생사건이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에 완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완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단행본)

김기현·임희진. 2007. 『패널데이터의 기초활동방법 - 한국청소년패널 사

레분석』.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 박정선. 2004. 『소년법의 범죄화 과정 및 보호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배병렬. 2005.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청람.
- 이동원. 2006. 『한국의 청소년비행: 동향과 요인』. 한국학술정보(주).
- 이병기·류철원. 1995. 『범죄경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국내문헌(연구논문)
- 김준호·김선애. 1996. “가족의 구조 및 기능과 반사회적 행동”.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1호.
- 민수홍. 2005.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자료집』.
- 박철현. 2005.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인과관계”.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자료집』.
- 이성식. 1995. “청소년비행론에 있어서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수정된 논의”. 『형사정책연구』 제 6권 제4호.
- 이성식. 2005. “가정과 청소년비행: 주요이론들의 매개과정을 통한 검증”. 『형사정책연구』 제16권.
- 이순래. 2005. “지속적 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Moffitt의 이질적 비행발생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4호.
- 정기원. 2007. “비행친구: 청소년비행의 원인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청소년학연구』 제 14권 1호.

외국문헌(단행본)

- Bernard, T. J. & Snipes, J. B. 1996. “Theoretical Integration in Criminology”. In Michael Tonry(Ed.), *Crime and Justice : A Reviw of Researc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talano, R. F., & Hawkins, J. D. 1996. “The social development model: A theory of antisocial behavior”. In J. D. Hawkins(Ed.), *Dlinquency and Crime: Current Theories* (pp. 149-197).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talano, R. F., Park J., Harachi T. W., Haggerty. K. P., Abbott. R. D.

- & Hawkin, J. D. 2005. "Mediating the Effects of Poverty, Gender,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xternal Constraints on Antisocial Behavior: A Test of the Social Development Model and Implications for Developmental Life-Course Theory". In D. P. Farrington(Ed.), *Integrated development and life-course theories of offending*, Transaction Publishers, New Brunswick, New Jersey.
- Elder, G. Jr. 1998. "The Life Course and Human Development",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In Lerner, R.(Ed.). New York: Wiley R.
- Farrington, D. P. 2005a. "Introduction to Integrated development and life-course theories of offending". In D. P. Farrington(Ed.), *Integrated development and life-course theories of offending*, Transaction Publishers, New Brunswick, New Jersey.
- Farrington, D. P. 2005b. "Conclusions about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Theories". In D. P. Farrington(Ed.), *Integrated development and life-course theories of offending*, Transaction Publishers, New Brunswick, New Jersey.
- Hawkins, J. D. & Catalano, R. F. 1992. *Communities That Care*. San Francisco: Jossey-Bass.
- Piquero, A., Farrington, D. P. & Blumstein, A. 2003. The criminal career paradigm. In M. Tonry (Ed.), *Crime and Justice*, Vol. 30(pp. 359-50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mpson. Robert J., & Laub, John H. 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iegel, L. J., and Welsh, B. C. 2007. *Juvenile Delinquency*, 3rd Edition. Cengage Press.

외국문헌(연구논문)

- Agnew, R & White, H. R. 1992. "A Empirical Test of General Stain

Theory”. *Criminology* 30.

- Agnew, R. 1985.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 longitudinal test”. *Criminology* 23: 47-61.
- Doherty, E. E. 2006. “Self-control, Social bonds, and Desistance: A Test of Life-course interdependence”. *Criminology* 44.
- Farrington, D. P. 2000. “Explaining and preventing crime: The globalization of knowledge-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1999 Presidential Address”. *Criminology*, 38: 1-24.
- Farrington, D. P. 2003.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 Key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Criminology* 41:221-255.
- McLeod, J. D., & Shanhan, M. J. 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351-366.
- Paternoster, R & Iovanni, I. 1989. “The labeling perspective and delinquency: An elaboration of the theory and assessment of the evidence”. *Quarterly* 6: 359-394.
- Piquero, N. L. & Sealock, M. D. 2004. “Gender and general strain theory: a preliminary test of Broidy and Agnew’s gender/GST hypotheses”. *Justice Quarterly* 21(1)125-158.
- Weerman, F. M., & Smeenk, W. H. 2005. “Peer similarity in delinquency for different type of friends: a comparison using two measurement methods”. *Criminology*, 43(2),499-524.

The Effect of Negative Life-Event on Delinquency and Re-Delinquency

Jung, Hye-Won*

Park, Cheong-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spect the effects of 'negative life-events' on delinquency and re-delinquency and verify the role of diverse mediating factors which play some roles throughout the process. For this purpose, several major factors are derived from the diverse 'negative life-events' and these were evaluated to test the process of mediation upon the dependent variables of delinquency and re-delinquency. Factors such as 'parents relation', 'self-control', 'self-esteem', and 'delinquency friends' were adopt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s.

For the statistical data analysis, we utilized "KYPS(Korean Youth Panel Survey)" data between 2003-2006, which has the total number of 3,449 adolescent subjects. To test the hypotheses, we used the statistical method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ith AMOS.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by two points. First, there is no direct effects of 'negative life-events' upon the onset of delinquency, while 'unprofitable event', 'punishment', and 'voluntary event of parents' had direct effects on re-delinquency. Second, the effects of 'negative life-events' are largely mediated by 'self-control', 'delinquency friends', and 'parental affection' so that we could not find any direct effects of 'negative life-events' upon delinquency. However, in case of re-delinquency, the effects of 'negative life-events' are partly mediated

* Doctor Course in Sociology Korea University

**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Ph.D. in Sociology

by 'self-control', 'self-esteem', 'delinquency friends', and 'supervision of parents' so that we could find not only direct effects but also indirect effects of upon re-delinquency.

주제어 : 부정적 인생사건, 비행, 재비행, 매개효과, 전-생애과정범죄학

Keywords : negative life-event, delinquency, re-delinquency,
mediation effect,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

투고일 2008.5.17. / 심사일 2008.6.2. / 게재확정일자 2008.6.16.(월)